

어린이집 아동의 건강기능식품 이용실태와 한약이용에 대한 인식 - 원주와 충주의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

성현경¹⁾ · 민들레²⁾ · 박수정³⁾ · 성안젤라동민⁴⁾ · 이선동⁴⁾ · 박해모⁴⁾*

¹⁾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소아과학교실, ²⁾ 민들레 한의원

³⁾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교실, ⁴⁾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rvey on the Use and Percep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Herbal Medicine for Children in Local Day Care Center - Focus on Wonju and Chungju Region -

Hyun-Kyung Sung¹⁾, Deul-Le Min²⁾, Su-Jung Park³⁾,
Angela Dongmin Sung⁴⁾, Sundong Lee⁴⁾ & Haemo Park⁴⁾*

¹⁾ Dept. of Pediatric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²⁾ Min Deul Le Korean Medicine Clinic

³⁾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Woosuk University,

⁴⁾ 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s : The use of health functional foods is gradually increasing. On the other hand, the use of the Korean herbal medicine is gradually decreasing. Especially children are known to have a high percentage of taking a health functional food. This study was designed to compare the use of health functional food with the reason for taking the Korean herbal medicine.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453 parents who have kids age between 3 to 6 years old from day care center in Wonju and Chungju.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7 questions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by self-entry method. This study analyzed 374 participants' questionnaires who agreed to the survey.

Results : The percentages of children's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 experience were 82.9% and they usually bought products which contain lactic acid bacteria(55.6%). The reason for consuming health functional food was to strengthen the immune system and enhance the physical strength. Most of the participants purchased health functional food from pharmacy through inaccurate information such as the internet. The percentages of children's health functional food preference were 58.5% because it is easy to take. The percentages of children's herbal medicine preference were 41.7%. There are inconveniences of taking herbal medicine because of taste and smell(68.8%).

Conclusions :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ormulation of the herbal medicine and increase convenience for use of the herbal medicine to preschooler(3-6 years ol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upply accurate and up to date information of herbal medicine taking.

• 접수 : 2017년 8월 7일 • 수정접수 : 2017년 8월 22일 • 채택 : 2017년 8월 25일

*교신저자 : 박해모,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83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1105호

전화 : 033-738-7508, 팩스 : 033-730-0653, 전자우편 : haemopark@sj.ac.kr

Key words : Health functional food, Children day care center, Use of the Herbal medicines

I. 서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출산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성장에 대한 관심은 날고 증가하고 있으며, 영양결핍과 질병을 예방하는 의미에서의 건강보조제의 복용 또한 늘어나고 있다¹⁾. 최근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건강보조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섭취량도 늘어나고 있으나, 보호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광고, 비의료인에 의한 권유 등으로 인해 과잉섭취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²⁾.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신체의 육체적, 생리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기대하여 섭취할 목적으로 식품소재에 함유된 성분을 그대로 원료로 하거나 이들에 들어 있는 특정성분을 분리, 추출, 농축, 정제, 혼합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법에 정의하고 있다³⁾.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은 질병을 직접적으로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⁴⁾.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4년 이후로 급속히 성장한 반면,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관리, 소비자 교육 등은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⁵⁾. 특히, 성인에 비해 청소년이나 소아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을 주도적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 선택되어진다는 점에서 이용실태 파악과 관리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김 등⁶⁾은 14-18세 사이 청소년의 건강기능식품의 복용이 보편화되었음을 보고하면서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 등⁷⁾은 경북 구미시의 1~8세 소아의 건강보조제 사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미숙아, 혼합수유, 선천성 질환, 저신장, 저체중이 있는 아이들에게 건강보조제를 복용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며, 이 외에도 김 등⁸⁾은 초등학교

영양보충제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한약이용과 비교한 몇몇 연구⁹⁻¹¹⁾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이용률과 복용 목적, 부작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들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학령기 아동 또는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학령전기의 미취학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처음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나이가 6세 미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11,12)}을 볼 때에 6세 이하의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이용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한약과 건강기능식품의 복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한약 복용의 첫 복용 경험 시기가 건강기능식품보다 이르지만, 현재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한 경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⁹⁻¹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이용이 만 3-6세의 영유아에서 어떤 특징을 갖는지 알아보고 한약복용에 대한 선호와 비교하였으며, 강원, 충북의 중소도시 어린이집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이용실태와 한약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방법

연구는 강원도 원주시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상 어린이집은 모두 6개소(원주 4개소, 충주 2개소)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하였다. 어린이집은 재원인원 80명 이상의 어린이집 중 원장이 동의하는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10월 24일~10월 31일 1주간이었다. 설문지는 어린이집 원장의 동의하에 만 3-6세 어린이집 아동의 학부모 537명을 대상으로 배포되었고, 이중 연구에 동의하여 회수된 374부(응답률 69.6%)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설문지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내 논문을 검토하여 저자들이 논의를 통해 구성하였으며,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변수와 부모의 건강기능식품의 복용경험, 자녀의 건강기능식품 복용경험과 복용한 경험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복용 목적, 한약복용에 대한 태도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통계분석

취합된 설문지의 자료는 SPSS 23.0(IBM Corp, Armonk, NY, USA)로 분석하였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 < 0.05$ 로 하였다.

4. 연구윤리

본 연구는 상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SJ IRB Human-16-004).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총 374명의 학부모가 응답하였으며,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199명(53.2%)으로 남아 175명(46.8%) 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5세가 109명(29.1%)으로 가장 많고, 3, 4세가 27.8%, 25.9%로 대체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가족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대부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participating children and parents

Variables		Wonju (n = 231)	Chungju (n = 143)	Total (n = 374)	p (χ^2 test)
Gender	Boy	111(63.4)	64(36.6)	175(100.0)	0.594
	Girl	120(60.3)	79(39.7)	199(100.0)	
Age	3	63(60.6)	41(39.4)	104(100.0)	0.745
	4	64(66.0)	33(34.0)	97(100.0)	
	5	64(58.7)	45(41.3)	109(100.0)	
	6	40(62.5)	24(37.5)	64(100.0)	
Type of housing	Parents	197(65.7)	103(34.3)	300(100.0)	0.245
	Parents and grand parents	26(78.8)	7(21.2)	33(100.0)	
	Single parent	5(55.6)	4(44.4)	9(100.0)	
Type of residence	Apartment	209(68.1)	98(31.9)	307(100.0)	0.129
	Etc.	19(54.3)	16(45.7)	35(100.0)	
Family income (Won)	Less than 2million	10(76.9)	3(23.1)	13(100.0)	0.783
	2-3million	45(69.2)	20(30.8)	65(100.0)	
	3-4million	72(71.3)	29(28.7)	101(100.0)	
	4-5million	46(65.7)	24(34.3)	70(100.0)	
	Over 5 million	48(64.0)	27(36.0)	75(100.0)	
Insurance	Health insurance	212(67.1)	104(32.9)	316(100.0)	0.516
	Medical care	9(64.3)	5(35.7)	14(100.0)	
Father's age	20s	4(66.7)	2(33.3)	6(100.0)	0.091
	30s	132(62.3)	80(37.7)	212(100.0)	
	over 40	91(74.0)	32(26.0)	123(100.0)	
Mother's age	20s	3(33.3)	6(66.7)	9(100.0)	0.094
	30s	168(67.7)	80(32.3)	248(100.0)	
	over 40	56(68.3)	26(31.7)	82(100.0)	
Education level of father	Under high school graduate	32(74.4)	11(25.6)	43(100.0)	0.271
	College or higher	190(65.9)	98(34.0)	288(100.0)	
Education level of mother	Under high school graduate	34(66.7)	17(33.3)	51(100.0)	0.934
	College or higher	189(67.2)	92(32.7)	281(100.0)	

분이었으며(87.7%), 주거형태는 아파트 307명(98.8%), 가족수입은 300-400만원이 101명(31.2%)으로 나타났다.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자가 316명(95.8%)으로 대부분이었고,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 연령대는 모두 30대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주와 충주지역의 인구학적 변수를 비교하였을 때 두 지역 간 차이는 없었다(Table 1).

2. 학부모의 건강기능식품 이용실태와 인식

학부모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77명(74.1%)이 섭취경험이 있었고 275명(73.5%)이 건강기능식품 효능이 있었다고 하였다.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아는지 여부에서는 168명(44.9%)이 안다고 답한 반면 모르는 경우는 55.1%로 나타나 복용 경험에 비해서 건강기능식품의 인식은 상

대적으로 낮았다. 자녀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310명(82.9%)이 있다고 하여 부모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자녀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도록 돕는 사람으로는 어른이 챙겨주는 경우가 294명(93.0%)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스스로 복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5.7%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도록 하였을 때 그 효과에 대해서는 75.3%가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도 1건이 있었다(Table 2).

3. 3-6세 아동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복용 목적

자녀가 섭취했거나 섭취중인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중복응답하도록 하였을 때에 가장 많이 복용하는 제품은 유산균함유제품으로 응답자의 55.6%가 경험이 있

Table 2.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intake health functional food in parents

Questions	Answers	n=374	%
Parent's experience of health functional food	Yes	277	74.1
	No	97	25.9
Parent's-minded health functional food efficacy	Yes	275	73.5
	No	99	26.5
Whether the parent know the health functional mark or not	Yes	168	44.9
	No	206	55.1
Children's experience of take health functional food	Yes	310	82.9
	No	64	17.1
Who cares for health functional food to your child	Parental guidance	294	93.0
	Children themselves	18	5.7
	Childcare teacher	4	1.3
Effect after child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	Yes	235	75.3
	No	77	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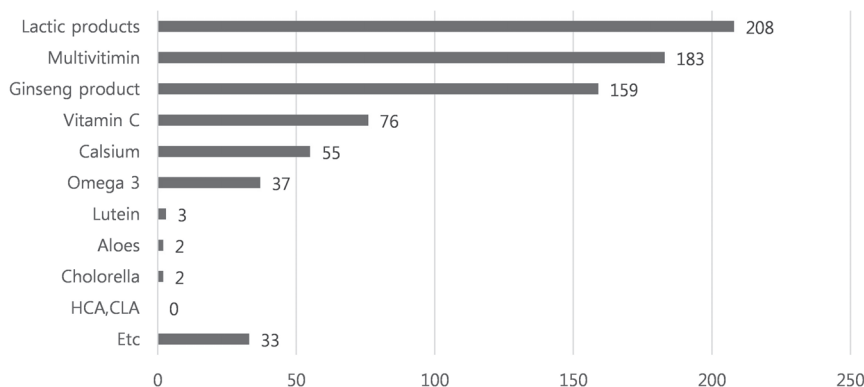


Figure 1. Health functional food products in children (Duplicate response)

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종합비타민 48.9%, 홍삼류 42.5%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비타민C와 칼슘도 각각 20.3%, 14.7%로 많이 복용하였다(Figure 1).

자녀가 복용 경험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개수는 2개가 33.2%로 가장 많았고, 1개(25.4%), 3개(21.6%) 순으로 나타났으며, 복용 경험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평균은 2.44 ± 1.25 개였다(Table 3).

Table 3. Experience of intake health functional food in children

Experience number of take health functional food	n=310	%
1	79	25.4
2	103	33.2
3	67	21.6
4	41	13.2
5	13	4.2
6	7	2.3
Mean	2.44 ± 1.25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목적을 중복응답으로 물었을 때 면역력증진이 77.8%로 가장 많았고, 체력증진이 31.8%, 영양보충 29.1%, 장건강 20.6%, 키성장 16.8%, 식욕증진 15.5%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처로는 약국 38.8%, 인터넷쇼핑 32.6%, 건강기능식품전문점 21.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정보 51.3%가 가장 많았고, 친구, 친척 등 지인 44.9%, 의사, 약사 등 전문가 29.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Place of purchase health functional food (Duplicate response)

Purchase place	n = 374	%
Pharmacy	145	38.8%
Internet	122	32.6%
Health functional food shop	80	21.4%
Mart	56	15.0%
Korean Medicine clinic	56	15.0%
Visit sales	28	7.5%
TV home shopping	20	5.3%
Department store	6	1.6%
Etc.	6	1.6%

Table 5. Information acquisi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Information acquisition	n = 374	%
Internet, blog, online community	192	51.3%
Friend or family member	168	44.9%
Medical professional- doctor, pharmacist	109	29.1%
TV, radio advertising	55	14.7%
Visiting salesman	18	4.8%
Paper advertisement- newspaper, magazine	11	2.9%
Day care center parents	10	2.7%
Etc.	6	1.6%

4. 건강기능식품 또는 한약복용을 선호하는 이유

건강기능식품과 한약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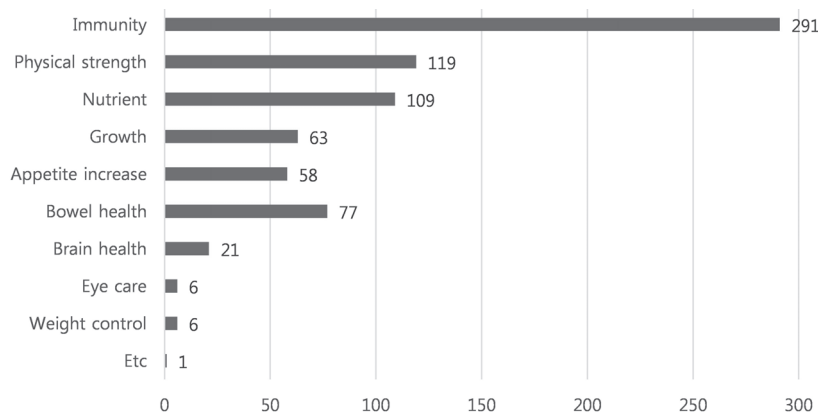


Figure 2. Purpose of health functional food intake (Duplicate response)

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8.5%(216명)가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하였고, 41.7%(153명)가 한약복용을 선호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편리한 복용이 120명(5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성에 대한 기대감이 19.9%, 더 뛰어난 효능이 12.5% 순으로 나타났고, 한약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이유로는 효능이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100명(6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가 40명(26.1%)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경험에 따라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분석하였을 때, 자녀에게 건강기능식품을 복용시킨 경험이 있을 때 한약을 선호하는 비율은 42.0%였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시킨 경험이 없을 때 한약을 선호하는 비율이 38.7%로 나타나 한약을 선호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p=0.368), 건강기능복용경험이 건강기능식품과 한약을 선호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5. 한약복용에 대한 태도

한약복용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한약의 맛이나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254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복용시 데워야 하는 불편함(11.7%) 등을 지적하였으며,

복용시키기 편한 한약 제형의 형태로는 시럽제(44.7%), 탕제(30.4%)가 높게 나타났다. 한약 1주일치의 적정 가격에 대해서는 3만원 이내(43.1%), 3-5만원(42.3%)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한약을 먹기 시작해 되는 나이에 대한 인식은 216명이 24개월 이후부터 (58.5%)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Table 8).

IV. 고찰

한국은 산업화, 현대화를 겪으면서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변화하였고, 만성질환 유병율의 증가와 노령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흐름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생산과 소비는 매년 증가하여¹³⁾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 2004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은 약 2,500억 원이었는데¹⁴⁾, 2015년의 생산실적은 1조 8,239억 원¹⁵⁾으로 지난 10여 년간 7.3배 증가하였다. 또한, 2015년 건강기능식품의 시장규모는 건강기능식품의 지속적인 생산증가와 면역기능 개선 제품,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의 대폭증가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16.2% 증가하는 등 매년 1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16,17)}.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과 반대로 한약의 이용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¹⁸⁾ 이는 건강기능식품이 식품

Table 6. Reasons for prefer to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 or Herbal medicine

	Preference		Total	p-value
	Health functional food	Herbal medicine		
More effect	27(12.5)	100(65.4)	127(34.4)	0.00*
Less side effect	43(19.9)	40(26.1)	83(22.5)	
Easy to take	120(55.6)	1(0.7)	121(32.8)	
Low price	15(6.9)	2(1.3)	17(4.6)	
Etc.	11(5.1)	10(6.5)	21(5.7)	
Total	216(100.0)	153(100.0)	369(100.0)	

* : fisher's exact test

Table 7. Difference reasons for prefer to taking health functional food and herbal medicine

		Health functional food	Herbal medicine	Total	p(χ^2 -test)
Children's experience of take health functional food	Yes	178(58.0)	129(42.0)	307(100.0)	0.368
	No	38(61.3)	24(38.7)	62(100.0)	
Total		216(58.5)	153(41.5)	369(100.0)	

Table 8. Inconvenience of taking, formulation and price of the herbal medicine

Variables	Answer	n = 374	%
Inconvenience of taking the Korean herbal medicine	Flavor and tasty of Korean herbal medicine	254	68.8
	Amount of liquid type	28	7.6
	Discomfort to warm up before taking the medicine	43	11.7
	Difficulty of keeping and carrying	26	7.0
	Etc.	18	4.9
Dosage form of easy intake	Liquid type	112	30.4
	Granule	40	10.8
	Syrup	165	44.7
	Pill	46	12.5
	Etc.	6	1.6
Reasonable price to take Korean herbal medicine (per week)	Less than 3 million won	159	43.1
	3-5 million won	156	42.3
	5-7million won	39	10.6
	7-10million won	11	3.0
	More than 10 million won	4	1.1
Age of able to take Korean herbal medicine	After 12 month	67	18.2
	After 18 month	21	5.7
	After 24 month	216	58.5
	Etc.	65	17.6

과 의약품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여 잠재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식되면서¹⁹⁾ 한약의 전통적 역할과 상당히 겹치는 위치에 있어 한약의 수요를 빠르게 대체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한약재를 원재료로 사용되는 종류가 많아 2015년 품목별 생산현황¹⁶⁾을 보면 홍삼제품이 46.2%로 가장 높고, 개별인정형 품목으로는 당귀 혼합추출물이 22.3%, 갱년기 여성건강을 위한 백수오 복합추출물이 11.9%, 어린이 성장을 위한 황기 복합추출물이 8.3%로 나타나 한의학에서 본초로 사용되는 약재를 제품화한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보와 소비자 교육,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⁵⁾ 또한, 한약과의 경계 또한 모호해 이에 대한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아동의 경우 성장·발육을 위한 영양제 등을 비롯하여 비타민, 무기질 섭취가 증가하고 식이보충제를 통한 영양소의 과잉섭취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²⁰⁾. 일례로 어린이 성장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2015년 266억 원으로 전체 건강기능식품 판매 현황

의 5.8%를 차지하며 해마다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⁵⁾.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제 경우 고함량의 영양물질과 무기질 등 농축되어 과잉 섭취 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며, 자녀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그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어 학부모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²⁰⁾.

본 연구 결과에서 학부모의 건강기능식품의 복용 경험에 대해서는 74.1%가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²¹⁾의 68.0%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수준이었으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73.5%로 비교적 높았다.

자녀의 건강기능식품 섭취경험에 대해서는 82.9%가 복용시킨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선행연구^{9,10)}에서 보고된 67.4~67.7%에 비해서 높았다. 이는 시간적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생각된다. 특히, 학부모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경험보다도 자녀에게 복용시키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학부모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건강기능식품을 자녀에게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에게 복용시킨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도

평균 2.44개로 연구대상의 연령이 3-6세 임을 감안하면 많은 종류를 복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자녀에게 복용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는 유산균 함유 제품(55.6%), 종합비타민(48.9%), 홍삼류(42.5%) 등이 많았는데, 초등학교 대상연구^{10,11)}에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보고된 영양보충용 제품(44.1~82.8%), 홍삼·인삼제품(26.9~43.4%)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였다. 1-8세 소아의 건강보조제 사용실태의 선행연구⁷⁾에서는 영양제, 정장제, 비타민, 인삼제품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동이 많이 복용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종류는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유산균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¹⁶⁾한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자녀에게 복용하도록 하는 목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면역력 증진(77.8%), 체력증진(31.8%), 영양보충(29.1%), 장건강(20.6%), 키성장(16.8%), 식욕증진(16.8%) 등이 있었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건강증진(43.0~47.1%)’, ‘키 성장을 위해(23.3~26.6%)’, ‘허약개선(12.9~19.7%)’ 등을 보고하여 초등학교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¹¹⁾. 이는 건강과 신체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동에 따라 다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의 구입처는 약국이 38.8%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얻는 경로는 블로그나 카페 등의 인터넷 정보(51.3%)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의사, 약사 등의 전문가는 29.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존 연구²²⁾에서도 TV/대중매체에 의존하는 비율이 45.0%로 가장 높았고, 의약전문가는 25.0%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정보가 비전문적이고 부정확한 경우가 많음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건강기능식품과 한약복용 중에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건강기능식품을 더 선호하였다(58.5%). 그 이유로는 ‘복용하기 편리함’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부작용이 더 적다(19.9%)’, ‘효능이 더 뛰어남(12.5%)’ 등을 들었다. 이 또한 선행연구⁹⁻¹¹⁾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데 복용의 편의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약을 더 선호하는 이유에서는 ‘효능이 더 뛰어남’이 65.4%로

나타났고, 복용의 편의성은 0.7%에 불과하여 한약복용의 불편함이 더욱 대비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한약 복용 시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한약의 맛이나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68.8%로 가장 높았고, ‘복용시 데워야 하는 불편함’이 11.7%, ‘탕제로 복용하는 경우 양이 많음’이 7.6%, ‘보관과 휴대가 어려움’이 7.0%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⁹⁻¹¹⁾에서 유사한 질문에 대해 ‘자녀가 먹기에 불편하다’(19.2%~39.8%)고 응답한 비율과 비교하였을 때 3-6세 아동에서는 복용의 거부감과 불편함이 월등히 높았다.

한약 복용 시 편한 제형에 대한 질문에는 시럽제를 44.7%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탕제 30.4%, 환제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1주일치 한약의 적정가격으로는 3만원이내가 가장 많아 전체의 43.1%, 3-5만원이 42.3%로 대략 5만원 이내가 전체의 85.4%를 차지하여 대다수를 이루어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한약 복용이 가능한 연령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4개월 이후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전체의 58.5%, 12개월 이후가 18.2%로 나타났다. 한약복용은 3개월 미만의 유아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한약복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¹¹⁾ 많은 학부모가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다. 한약이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지속적으로 한의계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3-6세 어린이집 아동의 건강기능식품 복용경험과 이용실태, 한약에 대한 인식을 학부모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대상 지역의 제한점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상자의 연령이 기존 연구보다 낮고, 대상 지역이 보고된 바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의의를 가지며,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은 연령의 차이와 건강기능식품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소비의 확대, 새로운 제품의 공급 등이 작용하였다고 사료된다. 향후 대상자를 확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며 한약복용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올바른 한의학 정보의 전달과 홍보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 결론

일부 지역의 3-6세 어린이집 아동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용실태와 한약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아동의 건강기능식품 이용경험은 82.9%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아동이 복용한 경험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유산균 함유제품(55.6%)이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의 복용 이유로는 면역력과 체력증진이 많았으며, 인터넷과 같은 부정확한 정보를 통해 주로 약국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높았다.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비율은 58.5%로 한약을 선호하는 비율(41.7%)보다 높았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복용하기 편리함이 가장 많았고, 한약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효능이 뛰어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한약복용의 불편한 점으로는 한약의 맛이나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68.8%로 가장 많았으며, 적정가격 대로는 1주일분에 3만원 이하는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한약의 제형은 시럽제가 가장 많아 앞으로 3-6세 아동의 한약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약제형의 변화와 편의성의 증대 등이 필요하며, 더불어 한약복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Korea Agro-Fisheries&Food Trade Corporation, Processed food markets reports, Sung Kwang Press, 2013.
2. Park HA, Kim SY, Nutritional Supplements, J Korean Med Assoc, 2012;55(9):889 -97.
3. Korea Health Supplement Association, Dietary Health Supplement Act, Seoul, 2004.
4. Lee JW, Do JH, Market Trend of Health Functional Food and the Prospect of Ginseng Market, J. Ginseng Res, 2005;29(4):206-214
5. 김경수. 건강기능성식품의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 2004년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4.
6. Kim SH, Han JH, Hwang YJ, Kim WY. Use of Functional Foods for Health by 14-18 Year Old Students Attending General Junior or Senior High Schools in Korea. J Korean Nutrition, 2005;38(10):864-72.
7. Lee HK, Survey of Taking Dietary Supplements in Children Aged 1~8 Year,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4;18(2):196-208.
8. Kim EM, Jung HJ, Jeong JW, Kim JW, Analysis of Elementary Students' Intake of Dietary Supplements, Korean J Food Cookery Sci. 2008;24(5):672-81.
9. Kim MK, Jung JH, Ahn JS, Yim JH, Lee HJ, Park EJ. A Study on the State of Health Functional Foods & Herbal Medicine Consum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09;23(3):143-53.
10. Kim MK, Jung JH, Shin KS, Lee DY, Lee HJ, Park EJ. The Study on Consumption of Health Supplements and Herbal Medicines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J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10;24(2):40-8.
11. Kim MK, Jung JH, Min DL, Lee HJ, Park EJ. Study to Examine the Awareness of the Parents, whose Children are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in Gyeonggi-do, on Herbal Medication and Health Functional Food J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11;25(1):111-8.
12. Jeon SH. Intake Pattern and Preference of Health Functional Foods by Children - Focusing on Seoul, Gyeonggi area. Thesis of Master's Degree in Chung Ang Univ. 2015
13. Kim Hyun-Ku.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Nutraceuticals. Food Industry and Nutrition, 2004;9(1):1-14
14.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alysis Report for Annual Production of Functional Foods in 2012, 2013;1-7
15.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15 건강기능식품 국내 시장 규모 동향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7
16.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통계자료. 2016.8.11. 배포자료
17. Um IY, Jeon HJ. Industrial Analysis Report for Functional Foods. Foundation Agri. Commercialization and Transfer, 2013;14-6
18.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2012 National Health Insurance Statistical Yearbook, 2013:176

19. Son Chang-Gue, Progress of Functional Food Market in Korea and Strategy of Korean Medicine. *J Korean Med*. 2014;35(1):68-74
20. Korean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Safety Assurance on Food and Eating/Nutrition Environment for Children. KHIDI, 2011
21. Kang Su Jin, Lee Young Joon, Perceptions and Consump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in Daegu area,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10;14(3):93-105
22. Son JM, Survey of Health Functional Foods Usage and Oriental Herbal Medicine Dosage for Children Suffering from Skin Dermatitis, Thesis of Master's Degree in Chung-Ang University, 2006